

마케도니아와 관련된 고고학적 발굴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신도스 발굴

1980년 테살로니키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신도스라는 도시 부근에서 우연히 한 무리의 고대 무덤들이 발견되었다. 곧 그리스 고고학자 데스피나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꾸려 1982년 9월까지 121개의 무덤과 48개의 석관을 찾아냈다. 이 무덤들은 현재의 갈리코스 강 오른쪽에 네아 암피아로스 무덤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나지막한 구릉지 위에 펼쳐져 있다.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560년경의 것으로 가장 늦은 것은 대략 기원전 410년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품들로 미루어 볼 때 이 무덤들이 사용된 연대상의 절정기는 기원전 540~530년과 기원전 480년~470년 사이라고 여겨진다. 그 구릉지는 훗날 더 이상 매장지로 쓰이지 않게 되고, 기원전 4세기에는 그곳의 남쪽과 동쪽에 아궁이가 있는 크고 작은 4개의 작업장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는 상고기 무덤들의 발굴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1980년에 12개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이 무덤들은 기원전 425~38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문헌 사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 관한 전승은 사실성이 희박하다. 독일에서 출간된 『고전고대학 백과사전』(Real Enzyklopädie)에서 ‘신도스’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테르메 만에 연한 뭉그도니아 지방의 한 도시’라는 해설이 보이고, 고대 지도에 의하면 그 장소는 테르메 북쪽 약 5km 지점이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 이 부근은 뭉그도니아 지방이다. 함대는 마침내 정해진 곳 테르메에 도착했고, 더 나아가 신도스 및 악시오스 강변의 칼레스트라에도 이르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역사』 제7권, 123장). 데스피나

는 1982년에 무덤과 구릉 사이의 좁은 지역에서 시험 발굴한 결과, 대략 4m 깊이에서(즉 신석기 문화층 아래에서), 악시오스 강의 모래 성분이 두텁게 쌓인 지층을 발견했다. 그로 미루어 볼 때 예전의 강줄기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동쪽으로 치우쳐 그 무덤 가까이에 흘렀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그 무덤의 주인공들은 악시오스 강변의 칼레스트라 주민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데스피나 자신은 그 무덤의 주인들이 고대 신도스의 주민이 아니라, 혹 고대 칼레스트라의 주민이 아닐까 추정하면서도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무덤과 부장품

121개의 무덤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발견된 48개의 관 중 14개는 상자형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4개는 얇은 모퉁이돌과 이오니아식 기둥머리를 사용해 만든 것이고, 나머지 11개는 6장의 석판을 조립해 만든 것으로 석재들은 작은 조개껍질이 들어 있는 대리석이었다. 제2의 유형의 석재도 같은 대리석인데, 다만 조립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자형으로 만들어졌고, 상부가 평평하고 단순하게 아무런 장식도 없는, 말 그대로 ‘상자’ 같은 것이다. 그 관들의 뚜껑은 한 장의 판석으로 만들어졌는데, 31개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제3의 유형은 점토로 만든 옹관 형으로 모두 3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무덤의 대부분은 직접 땅을 파서 만든 장방형의 단순한 구덩이들이며, 그 중 몇 개는 목관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모든 무덤은 규격이 일정한 (평균 규격은 2m×0.5~0.6m×0.4~0.9m) 1인 묘이지만, 두 개는 예외로 각각 남녀와 2명

의 여성을 합장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 피장자는 모두 머리가 서쪽을 향한 반면, 여성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덤 자체는 비교적 소박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부장품의 내용은 꽤나 호화롭다. 121번 무덤은 대략 반쯤 도굴당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도구, 무기, 장신구, 테라코타, 도기 등 많은 부장품이 나왔다. 남성은 청동 헬멧, 철제 칼, 철제 단도 등의 무기와 함께 묻혀 그가 전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여성은 금, 은, 동, 혹은 철로 만든 장신구들과 함께 매장되고 있다. 표면에 얇은 황금 판으로 장식된 헬멧 등의 무구도 볼 만하지만, 특히 여성의 황금 장신구에 보이는 세공은 눈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다.

남쪽 및 서쪽과의 교류

기원전 550년경 마케도니아 인은 피에리아, 보티아이오이, 아르도피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지만, 위에서 말한 발굴 지역, 즉 악시오스 강 동쪽으로는 아직 진출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 무렵 그 지역에서는 트라키아 계통의 부족인 파이오니아 인이 유력했다. 그들은 북쪽에서 그 지역으로 침투하여 같은 계통의 부족인 에드노이 인으로부터 암파시티스를 빼앗고 악시오스 강 하구로 내려가 튀그도니아 지방이나 쿠물리 계곡을 점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도스의 발굴에서는 죽은 자의 입에 씌워진 뒷개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종교적 관습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분명치 않지만, 비슷한 것이 기원전 6세기에 속하는 여러 곳의 무덤들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그곳들은 대개 트라키아인의 세력이 미친 범위와 일치한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일리리아 지방에서도 비슷한 물건이 나오는 것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신도스에서 나온 황금 마스크와 동일 유형의 것이 역시 일리리아 지역에서 나온다는 사실과 함께, 두 지역 사이의 교류 관계를 추측하게 한다. 한편 신도스의 무덤들에서 나온 아티카 형과 코린토스 형의 도기들은 남쪽과 교류했음을 알려주는 증거들이다.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바로는, 기원전 6세기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테르메만의 동쪽 라이케오스에 갔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그런 교류 관계를 입증하는 단서이다(『역사』 제1권, 62장). 그리고 그와 대략 같은 시기에 테르메에서 가까운 네아·암피아로스의 무덤 부근에 그 정도 규모의 무덤군을 만들 수 있는 주민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네아·암피아로스의 무덤 부



그림 1. 신도스 무덤의 일부 / 출처 : <https://www.travel-to-thessaloniki.com>



그림 2. 신도스에서 출토된 헬멧 / 출처 : <http://www.dailyjournal.net>

근의 주민이 트라키아 계통의 부족이었음은 대체로 확실하다. 그러나 도시를 건설해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지역이 남쪽 및 서쪽과의 교역로 위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육지와 해상의 중계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베르기나 왕묘의 발굴

1977년부터 78년까지 베르기나에서 그리스 고고학자 안드로니코스는 거대한 무덤 아래에서 3개의 분묘를 발견했다. 다행히도 그들 중 2개는 도굴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 발굴자 안드로니코스는 1977년 가을에 발굴된 분묘(이를 제2분묘라 한다)에 관해서, 출토품을 검토한 결과에 근거하여 그 묘의 피장자를 알아내려 했다. 제2분묘는 전형적인 마케도니아식 분묘로 전체가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일종의 부속실이며 보다 널찍한 방은 본실이다. 두 방은 대리석제 2장의 문짝을 가진 벽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 동쪽 전면은 페디멘트조차 없지만, 분명 신전 건축의 정면과 흡사하게 지어져 거기에 사냥의 프레스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발굴자는 이 분묘를 왕묘로 단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본실의 피장자를 필리포스 2세, 부속실의 피장자를 필리포스의 마지막 아내 클레오파트라로 추정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굴품은 전체적으로 보아 기원전 450-425년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부장품의 내용이 풍부하고 질이 좋으며, 셋째, 본실에서 발견된 5개의 상아제 작은 초상, 그 가운데 2개는 분명히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묘사하고 있다. 넷째, 부속실에서 발견된 형태와 크기가 다른 좌우 각

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섯째, 분묘의 규모가 마케도니아식 분묘 중에서 1급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묘실 안에서 발견된 인골을 분석한 결과, 본실의 피장자는 40~50세의 남성이며 부속실의 피장자는 23~27세의 여성이다.

이 근거들 가운데, 둘째, 셋째, 다섯째는 이 묘가 왕묘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둘째 근거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황금의 상자 뚜껑에 마케도니아 왕가의 문장(별 혹은 태양)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 화장해 썩은 유골을 싸고있는 호화로운 천, 고가의 황금제 잔(본실에서는 떡갈나무 잎과 열매 모양, 부속실에서 나온 것은 천인화의 잎과 꽃 모양)과 함께 왕관, 왕홀의 존재는 피장자가 단지 왕조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왕 자신이라는 추정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면 그 왕은 대체 누구인가? 이에 대한 추정의 근거가 첫째, 셋째, 넷째, 여섯째 근거이다. 우선 첫째 근거에 기초하여 매장 연대를 기원전 4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필리포스 2세가 아이가이에서 암살되고 그곳에 매장된 해가 기원전 336년이라는 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더욱이 필리포스 2세는 암살 당시 46세였는데, 그것은 여섯째 근거와 부합한다. 나아가 필리포스 2세는 기원전 338~337년 올림피아에 그의 가족 5명의 금, 상아 상들을 가진 필리페이온을 봉납했다고 하는데, 이는 셋째 근거에서 보이는 5개의 상아제 초상을 연상시킨다. 또 넷째 근거에서 본 크기가 다른 좌우 각반의 존재는 필리포스 2세가 다리를 절었다는 전승과 일치한다. 이상이 안드로니코스가 제기한 주요 논점이다.

안드로니코스의 위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우선 안드로니코스트 본실에서 발견된 5개의 상아형 초상에 대해 필리포스 2세의 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그 5개의 상아 초상과 필리페이온에 세워진 5개의 금, 상아상과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그 후 같은 유형, 같은 크기의 작은 머리 부분이 20개 이상 출토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앞에서 말한 안드로니코스의 추정을 불명확하게 만든다. 또 천장의 건축기술은 근동에서 그리스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에 도입되었던 것, 아울러 본실에서 왕관이 발견되었지만 이런 종류의 왕관에 마찬가지로 대왕에 의해 페르시아에서 받아들인 것이 되어 제2분묘의 천장과 왕관의 존재는 그 분묘가 필리포스 2세의 것이 아님을 웅변한다. 더욱

이 부속실에서 나온 고뤼토스의 연대 추정에도 관해서도 러시아의 고고학자 만체비치는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라는 다른 가설을 제안해 안드로니코스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상과 같은 반론에 대해 안드로니코스는 좌우의 형태와 크기가 다른 각반을 근거로 필리포스 2세 설을 계속 고집한다. 하지만 고전 자료와 문제의 각반과의 관계를 비교 검토해보면 필리포스가 다리를 절었다고 전하는 문헌사료에는 오른쪽의 상처 때문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각반은 왼쪽이 짧고 형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그 각반은 남성이 묻힌 본실이 아니라 여성이 묻힌 부속실에서 나왔던 반면, 남성이 묻힌 본실에서는 크기와 형태가 균일한 3쌍의 각반들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판단할 때, 이 묘의 피장자를 안드로니코스처럼 생각하지 않고 필리포스 2세보다 후대의 마케도니아 왕,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배다른 형제였던 필리포스 3세(아리다리오스)와 그 아내 에우리디케의 합장일 가능성을 제시한 학자도 있다. 아무튼 안드로니코스가 발굴한 묘가 왕묘라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림 3. 베르기나 발굴 장면(1977년, 가운데 쏘려 앉아 있는 사람이 고고학자 안드로니코스이다.) / 출처 : www.greece-is.com



그림 4. 필리포스 2세의 왕묘로 추정되는 곳의 입구 / 출처 : 위키피디아



그림 5. 베르기나 왕묘의 출토 유물 / 출처 : 위키미디어



그림 6. 필리포스 2세 추정 복원 모형
/ 출처 : www.greecehighdefinition.com

사람 뼈가 말해주는 것

제2분묘의 본실과 부속실의 황금 유골 상자 안에서 사람 뼈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선 본실의 유골 분석 결과, 피장자는 신장 160~170cm, 연령 35~55세의 남성임이 판명되었다. 몸은 야위었지만 근육조직은 잘 발달했고, 얼굴이 길고 코가 높으며 턱은 뾰족한 편이다. 골격만으로 볼 때 건강상태는 양호했을 것이다.

피장자를 필리포스 2세로 볼 경우, 그는 기원전 354년 메토네 포위 중에 오른쪽 눈을 부상당했다. 또 기원전 339년 일리리아 인과의 싸움에서 창으로 다리를 다쳐 불구가 되었다고 전해지므로 해당 신체 부분들도 분석해 보았다. 오른쪽 눈의 가장자리 뼈에 상처의 흔적은 없으며, 다리뼈에도 부상으로 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속실의 유골을 분석한 결과, 피장자는 신장 155cm로 20~30세의 여성임이 판명되었다. 결국 유골 분석으로는 그것들이 필리포스 2세와 클레오파트라의 유골이라는 확증은 얻을 수 없었다.

베르기나는 고대의 아이기가이인가

페르디카스 1세에 의해 건설되어 기원전 5세기말 아르켈라오스 왕이 펠라로 옮겨갈 때까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였던 아이가이는 대체 어디였을까? 펠라의 위치는 발견된 기왓장들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아이가이의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역사학자 중에는 에테사를 아이기가이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개의 마케도니아 식 분묘가 발견된 레프카디아를 아이기가이로 생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 가운데 영국의 고대사가 해먼드는 아주 일찍이 베르기나야말로 고대 아이기가이었다고 추정하였다.

1977년 왕묘의 발견에 이어 1978년에는 제2분묘에서 북서쪽으로 몇 미터 지점에서 도굴당하지 않은 제3분묘가 발견되어 새로운 논의가 일어났다. 이 분묘는 제2분묘보다 작을 뿐 아니라 화려함도 떨어지지만, 부장품으로 보아 왕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은제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화장한 유골은 12~16세의 소년임이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이론이 없지 않지만, 기원전 311~310년 카산드로스에 의해 처형된 알렉산드로스 4세의 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왕묘들의 발견은 베르기나가 고대의 아이기가이라는 가설에 큰 근거가 된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아이기가이가 마케도니아 왕묘의 소재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 1977년과 1978년의 발굴에 이어 1981년 이후에는 거대한 무덤의 동쪽 약 1km 지점에서 마케도니아식 묘를 3개 더 찾아냈다. 그리고 1982년에는 왕궁터에서 6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극장 터가 발굴되었고, 나아가 에우클레이아의 작은 신전이 출토되었다. 이런 발견들은 해먼드가 제안한 베르기나 = 고대 아이기가이 설에 유력한 근거들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